

# 선행으로 가득한 삶

여기에 있는 세 여성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던 신약전서 속의 인물들입니다.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읽은 다음, 알맞은 그림끼리 짝지어 보세요. 오늘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?



**브리스길라**는 남편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. 브리스길라와 그녀의 남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. 두 사람은 교회 모임을 하도록 자신들의 집을 내어 주었음지도 모릅니다.  
(사도행전 18:26 참조)



**루디아**는 보라색 염료를 파는 사람이었습니다. 루디아는 영을 느끼고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. 루디아는 여행 중인 주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해 주었습니다.(사도행전 16:14~15 참조)



**다비다**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옷과 외투를 바느질해 주었습니다. 베드로는 죽었던 다비다를 다시 살려냈습니다.(사도행전 9:36, 39~40 참조) ●



이 내용은 『와서 나를 따르라—개인 및 가족』 108쪽의 가르침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.